



식품업계  
“저속노화 식단으로  
건강 지켜요”  
L1



디지털마케팅 서밋  
“숏폼 마케팅  
구매 가능성 높아”  
L2



# “일상에 다양성 더해... 깊이 있는 크리에이터로 ‘한발 더’”



새벽을 여는 사람들

## 유튜브 크리에이터 에바(EVA)

거대 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는 놀라운 성장력으로 우리 일상에 자리잡았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의 빠른 발전에 힘 입어 동영상 시장을 주도했고, 이제는 다수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올해 9년차가 된 70만 유튜버 '에바(EVA)'(사진)는 이러한 유튜브 시장 성장기를 함께 왔다.

### ◆ '대학생 유튜버'가 '올 라운더'로

유튜버 에바의 시작은 2015년 대학생 시절과 맞닿는다. 올해 29살인 그의 본명은 김혜원으로 세종대학교 영화연출학과를 졸업했다.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대학 시절 타 크리에이터가 소개했던 '레페리 크리에이터' 신청 안내를 보고 흥미를 갖게 된 에바는 대학생인 자신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에바는 레오제이, 김습습 등과 함께 '레페리 뷰티 유튜버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1기' 출신이다.

그는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동영상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시작했다”면서도 “일상과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영상으로 항상 남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잘 나로 스쳐갈 수 있었던 순간들에 대해 다시금 회상할 수 있고, 순간마다 했던 다짐과 추억들을 돌아보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인 만큼 타인이 보는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학생 브이로그, 대학생 착장 등 대학생 관련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시청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에바는 어느새 9년차 유튜버가 됐다.

9년 동안 에바는 유튜브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대학생과 직장인을 겸하는 김혜원의 삶에서도 유튜브를 지키면서 말이다. 사실 세 가지를 모두 병행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대학생, 직장인, 유튜버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뒤로 두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에 있어서도 생각할 여유가 많을수록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관심사가 건강으로



대학생때부터 시작한 9년차 유튜버  
자연스러운 모습 담긴 영상에 매력  
대학생·직장인·유튜버 병행하기도

특정 주제보다 다양한 콘텐츠 시도  
꾸준함 위해 ‘지치지 않는 선’ 고민  
진심 쏟아주는 구독자에 늘 감사해

많이 변화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 관련 브이로그 등을 올리면서 새로운 영상도 담을 수 있게 됐다.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에바가 유튜버의 길을 확신했던 것도 이때다. “다른 일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단순히 흥미롭고 재밌기만 해서 유튜브를 했던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다”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형성됐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현재 에바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았던 대학생 콘텐츠를 벗어나 특정 주제를 갖게 다루는 토크 영상이나 뷰티·패션 영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현재의 돈을 유지하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다루고 싶

다”고 눈을 빛냈다.

이어 “예전에는 어떤 분야의 크리에이터 인가에 대한 분류를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분류가 사실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면서 “이제는 더 폭 넓게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뷰티 유튜버, 누군가에게는 일상 유튜버가 되는 등 다양하게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 ◆ 9년차 유튜버... ‘자연스러움’이 우선

에바는 영상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유튜버가 고민하는 ‘온앤오프(일상과 일에 대한 분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온앤오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일상을 담은 사람인 만큼 영상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경계를 뚜렷하게 나누려고 하다보면 영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온앤오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러운 영상물에 대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영상 안과 밖의 모습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다.

촬영을 하는 날에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담고, 촬영이 아예 없는 날에는 편집과 개인적인 일정을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

근 들어서는 변화하는 유튜브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롱폼(긴 영상)’보다는 ‘숏폼(짧은 영상)’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짧은 길이의 영상을 만드는 것에도 도전하고 있다. 유튜브와 에바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 ‘일희일비’하지 않는 유튜버 되기

에바는 어렵게 느껴지던 부분에 대해 성과를 얻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 안에 유튜버가 포함돼 있다. 특히 시청자 개인의 삶에서 본인의 영상물로 인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만큼 시청자들은 에바에게 상당히 소중한 존재다. 에바는 “구독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늘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 때부터 나의 콘텐츠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바는 구독자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선’을 늘 고민한다. 그는 “유튜브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억지로 좋은 모습, 높은 퀄리티만을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선을 지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유튜브는 수치적인 성과가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다. 그래서 늘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에바는 “정성 들여 만든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텐션이 다 운될 수도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당장 큰 성과가 없다고 해서 다음 콘텐츠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악플에 대해서도 동요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그는 “악플을 그렇게 답아 두는 편도 아니고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악플 자체도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다”며 “도덕적·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받은 비판이 아니라면 좋은 사인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바는 “모든 과정들이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된다”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인데 콘텐츠를 보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진심을 담아 주시는 정성이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힘을 줬다. 그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에너지를 소모해 진심을 쏟아 주시는 게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유튜브 채널 에바(EVA)에 게시된 콘텐츠. /유튜버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국축구, 클린스만 후임 찾기 돌입... 11일 이후 후보군 추려  
▲한국 남자하키, 말레이시아 꺾고 네이션스컵 5·6위전 진출 /사진 뉴시스

▲방탄소년단 진, 오는 12일 전역...복귀 신호탄  
▲뉴진스 ‘하우스 스위트’ 108만장 판매... 4연속 밀리언셀러 등극



▲김하성, 이틀 연속 홈런 가동...올 시즌 처음 /사진 뉴시스  
▲시비웅테크, 프랑스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3년 연속 정상